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9월(순교자 성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283(순교자의 찬가)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루가 9,23-26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새 신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기도를 열심히 바치자.
 - 본당의 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9월 25일, Parish 착좌식)*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86(순교자의 믿음)

MEMO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제1장 신앙의 신비

11.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1고린 11,23) 당신의 몸과 피로써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성체성사가 세워진 그 극적인 배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찬례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성사적으로 재현합니다. 성찬례는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십자가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라틴 예법에서 “신앙의 신비여!”라는 사제의 선포에 대하여, 신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잘 표현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 곧 거룩한 인성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의 선물이며, 당신의 구원 활동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체성사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곧 모든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고 겪으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인 성찬례를 거행할 때, 이 구원의 중심 사건은 실제로 현존하게 되며,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희생 제사는 인류의 구원에 매우 결정적인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처럼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주신 다음에야 희생 제사를 바치시고 성부께 되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각 신자는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하여 그 열매를 끊임없이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세 대대 이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그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변함없이 이 신앙을 재확인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이러한 진리를 상기시키며, 위대한 신비, 자비의 신비인 이 신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로써 우리에게 “극진한”(요한 13,1 참조)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순교자 성월 성서묵상>

주제 :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루가 9,23-26)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역설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제 목숨을 살리려는 노력은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른 이들도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여도 재물이 많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주님과 나를 묶지 않는 한, 내 생명은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역설 그 자체를 이룩하신 주님과 연결되면 될수록 그분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나의 유한한 생명은 죽음이 되고 나의 인간적인 죽음은 무한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순교성인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셨습니다. 혹독한 고생과 고통 끝에 스스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적 판단기준으로 볼 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울가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하는 재앙이요, 불행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역설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무한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우리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치장하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저것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려 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비어야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버려야 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버리고 비워 나가야 우리에게도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얻으면 얻고, 잃으면 잃습니다. 그래서 얻음이 잃음이고, 잃음이 얻음이라는 것은 명백히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모두 주먹을 꼭 쥐어 봅시다. 그리고 더 세게 최대한으로 쥐어 봅시다.

주먹을 세게 쥐면 질수록 힘드시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흠켜쥐려하면 이렇게 힘이 들고 지쳐버립니다.

이제 서서히 주먹을 펴보세요. 마음도 몸도 편안하시지요. (숨을 한번 크게 쉬세요)

쥐었던 것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몸과 마음은 상처와 병으로 멍이 듭니다.

이제 모든 것에서 힘을 빼세요. 그리고 내어놓고 맡겨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나눔>

1.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고 가는지요?
2. 내가 흠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때문에

글/이해인 수녀

번번이 결심을 하면서도
세속적 욕망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비열한 마음

죄를 짓고도 절절히 뉘우칠 줄 모르는
무딘 마음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냉랭한 마음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피 흘리며
울고 계신 님들이여

어서 산이 되어 일어나 말씀하소서.
고통의 높은 산을 넘어
끝내는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어서 굽이치는 강이 되어 소리치소서.
고통의 깊은 강을 건너
끝내는 죽을 수 있는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가파른 생명의 길
고독한 진리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걸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님들이여

이제 우리도 가게 하소서.